



지난 호에서는 하브루타에서 질문이 왜 중요한지와 유아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질문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알려줄까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보다 다양하게 만들어 여러 방향의 토론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질문 중심 하브루타 수업 모형을 살펴보자.

질문 중심 하브루타 수업 모형



질문 중심의 하브루타 수업은 학습자들이 본문을 읽고 각자 질문을 만들어서 먼저 짝과 일대일 토론을 한다. 그리고 둘이서 만든 질문 중 더 새로운 질문을 뽑고, 그 질문으로 모둠끼리 토론하여 모둠에서 또 토론자들끼리 최고의 질문을 뽑는다. 이어서 모둠별로 최고 질문으로 뽑힌 질문을 가지고 집중 토론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 발표하고 교사가 정리해 주는 수업이다.

- ① 교재를 읽고 각자 질문 만들기
- ② 각자 만든 질문을 유형별로 구분하기
- ③ 각자 만든 질문으로 둘씩 짝지어 먼저 토론하기
- ④ 짝과의 질문 중에서 최고 질문 뽑기

- ⑤ 짝끼리 뽑은 질문으로 모둠별로 토론하기
- ⑥ 모둠별로 최고의 질문 뽑기
- ⑦ 뽑힌 질문으로 모둠 토론하기
- ⑧ 토론 내용 정리하기
- ⑨ 각 모둠별로 발표하기
- ⑩ 교사와의 쉬우르(교사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 활동)

질문 중심 하브루타 수업 모형은 창의성의 기능 중 유창성(fluency) 즉,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계발하기에 좋은 모형이다.

질문 중심 하브루타 수업 모형에서 각자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생각의 틀을 갖게 하면 다양한 질문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3가지의 관점에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다음 문장을 통해 질문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① 본문에 나타난 내용 중 특정 단어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만든다.

특정 단어에 대한 의미를 각자 다르게 해석할 경우,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겨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때 ‘노숙자’의 의미에 대해 토론자 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원활한 토론 진행에 도움이 된다. 위 문장에서 ‘노숙자는 거지다.’라는 의견과 ‘노숙자가 거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에 대해 토론자들 사이에 합의점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 ② 특정한 문장의 표현과 느낌에 대해 질문한다.

위 문장에서는 ‘흘끗거리며’라는 표현이 특별한 표현이다. 이 표현이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 그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를 질문한다. 토론자가 행인의 입장에서 볼 때 노숙자에 대해 ‘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여기서 저러고 있어?’라고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참, 안됐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토론자의 감정까지를 합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아는 것이 토론에 도움이 된다.

질문 만들기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가장 기본적인 틀은 6하 원칙과 하브루타 기본 과정을 결합하는 것이다.

	내용(사실)	상상(심화)	적용(실천)	메타(종합)
누가?	내용의 사실 관계 파악	만약 ~라면? 만약 ~했다면? 만약 ~한다면? 의인화	- 비슷한 경험이 있나? 그때 어떻게 했나? -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시사점 - 교훈 - 반성할 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① 먼저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6하 원칙에 입각하여 질문을 만든다. 토론자 상호 간에 사실 관계에 대해 같은 개념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모든 토론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토론의 기본이 된다.
- ② 가정, 유추, 상상을 통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보는 질문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질문을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 ③ 나(우리)의 입장에 대입해서 질문을 만든다. 사건이나 사례를 토대로 내(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 ④ 제시된 사례에서 시사점, 교훈, 반성할 점 등을 찾아보는 질문이다. 학습 활동의 목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질문 만들기 수업은 유아들과 진행하는 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여 질문 만들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유아들은 생각하는 틀이 형성되어 텍스트를 읽거나 들을 때, 동영상 등을 시청하면서 벌써 질문할거리를 생각해 낼 것이다. 내용을 확인하는 사실 단계의 질문에서 더 확장하고 심화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실천에 대한 질문 만들기를 유아 스스로 해 나가도록 훈련시키면 점차 고등 사고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성수 교수님과 함께 하브루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브루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브레멘+ 부설 하브루타 교육 연구소입니다.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하브루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금도 끊임 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